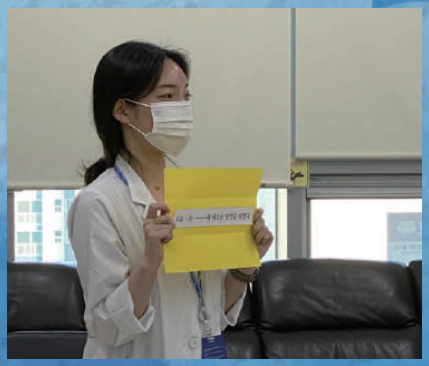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38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5.06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신입직원 교육이 있던 어느날, 9층 소망정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25년 신입직원 3개월 프로그램 실시

신입직원교육은 신입직원이 해나행의 조직문화와 비전을 이해하고,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갖추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입니다.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총 세 번의 만남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만남(1개월차), 병원소개 및 필수교육,
비전 수립 프로그램
두 번째 만남(2개월차), 입사동기와 함께 하는 소통의 장,
비전 돌아보기 프로그램
세 번째 만남(3개월차), 수습기간 과정의 노고 치하 및 축하,
앞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4기 신입직원 첫 번째 만남 (0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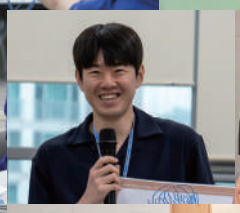
▷참여인원: 12명
▷참 석 자:
간호팀 - 이경은, 허미석, 황연아,
김경훈, 김슬기, 이효정
재활치료1팀 - 박민우
재활치료2팀 - 박현준
갑상선유방팀 - 김민주
내과내시경팀 - 최민서, 황혜령
뉴미디어팀 - 서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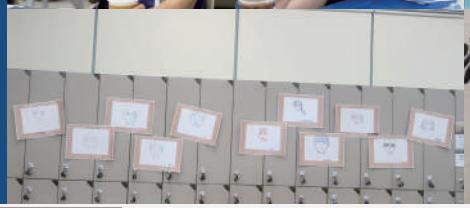
▷주요내용:
"참여자분들의 희망과 절박함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는 4기 신입직원교육에 참여한 한 선생님의 비전입니다. 이번 교육에 함께한 모든 4기 신입직원들도,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을 고민하며 각자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 비전이 해나행에서의 동기 부여와 지속적인 성장의 에너지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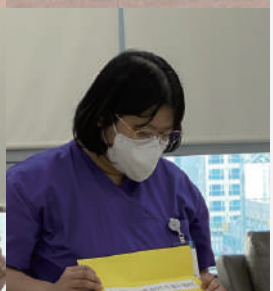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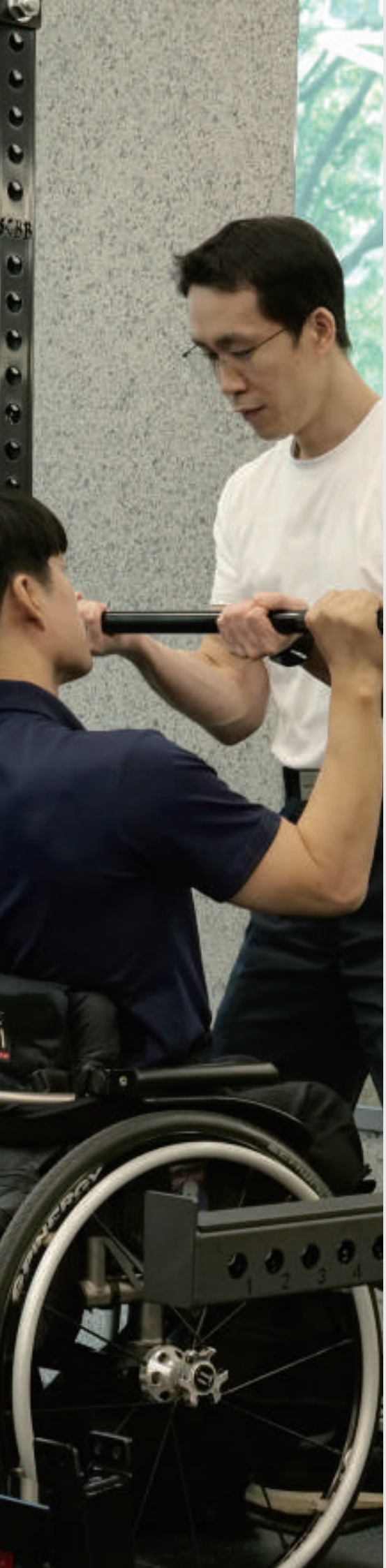






3기 신입직원 수습수료식 (06.27)

▷참여인원: 9명
▷참 석 자:
간호팀 - 박보윤, 유정옥, 손아연
신보민, 반보람, 홍소의
재활치료2팀 - 소예찬
내과내시경팀 - 신지원
심사팀 - 박자영

▷주요내용:
함께 성장한 시간, 3기 신입직원 수료식을 끝으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시간 동안, 신입직원들은 조직의 가치와 문화를 익히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함께 성장했습니다. 특히 '자기성장PT발표' 시간에는, "자신의 몫을 해내는 한 사람"라는 한 신입직원의 말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작은 응원의 한마디, 따뜻한 격려가 신입직원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병원 그 이후를 잇다

청봉기념 이룸재활운동센터 개소 (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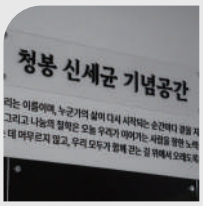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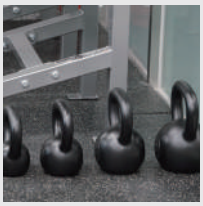
청봉기념 이룸재활운동센터는 병원 치료 이후에도 꾸준한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설립된 전문 재활운동기관입니다.

병원 옆 건물에 위치한 센터는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만성 근골격계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단순한 운동 시설을 넘어, 개인의 기능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이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단절 없는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운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과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후원과 기부를 통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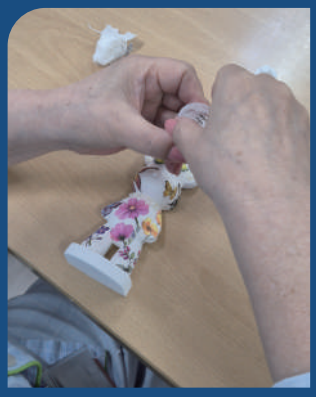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그룹치료 (06.14)

재활 2팀과 사회사업팀이 함께하는 그룹치료 시간!
사회사업팀이 준비한 세 번째 시간,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빅베어브릭 석고방향제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베어브릭은 성인들의 수집을 목적으로 탄생한 장난감이라는 설명으로 시작하여, 냅킨에 그려진 디자인 도안을 오리고, 제작된 베어브릭 석고본에 물풀로 도안을 붙이며 나만의 베어브릭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하늘하늘한 냅킨에 그려진 도안을 가위로 오려내는 작업이 어렵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종이를 지지할 수 없는 환경에 도움을 먼저 요청하기보다 책상과 박스 위에 놓고 오리기 시작하시는 모습에 놀라움과 감탄이 먼저 나왔고, 비록 삐뚤빼뚤해도 충분히 만족해하시며 작품에 몰입하시는 모습에 진지함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 그대로 묻어난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작품부터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각각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서로를 칭찬하고 성취감을 가득 채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료시간이자 심리정서 지지를 위한 시간이지만, 퇴원 후에도 참여자분들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을 함께 경험해 보는 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재활 2팀과 사회사업팀의 그룹치료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재활생활 (06.11)



한층 특별해진 슬기로운재활생활 세 번째 시간은
운동치료와 치료효과를 주제로 재활1팀 강봉학
부팀장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치료의 목적과 중요성, 운동치료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참여자와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셨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유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께서는 '운동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등 긍정적인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와 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25대 꿀꺽왕 시상식 (06.18)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합니다. 또한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25대 꿀꺽왕은 서○숙 참여자분이 선정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시간동안 열심히 치료 받아온 결과라 더욱더 값진 시상이였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데 긴 시간동안 치료해신 연하치료담당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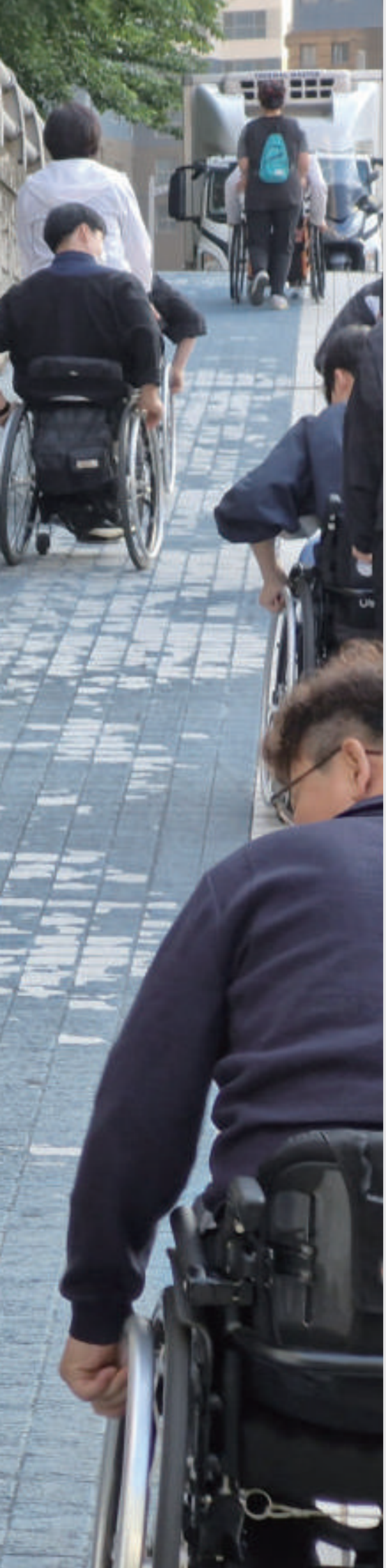
서○숙님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게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먹는 즐거움을 알아갈 참여자분을 만나신다면,
많은 응원과 축하부탁드립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6.13)



6층 낮병동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하여,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멋진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출석왕에는 서○조, 박○수 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류○태, 강○주 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참여자분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축하 속에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걸음을 가까이에서 함께 응원해주신 담당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곁에서 함께 힘이 되어준 선생님들의 격려와 따뜻한 관심이 있었기에, 참여자분들께서 더욱 자부심을 느끼며 멋진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낮병동 행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립니다.



휠체어스쿨 (05.26)



참여자분들과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외부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 모두 5층 치료실에 모여 이동 준비를 하였고, 이동 과정에서는 휠체어 스쿨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사로 오르기, 턱 넘기, 보호자의 보조 역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참여자분들이 스스로 경험 하였습니다.

실제로 병원 밖의 환경은 병원 내부보다 훨씬 더 거칠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울퉁불퉁한 보도, 잘 보이지 않는 턱, 좁은 공간 등은 휠체어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러한 장애물을 직접 마주하고 극복하려는 참여자들의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며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상홈 (05.25)



병원에서 늘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재활치료에 임하는 참여자분이 계십니다. 힘들 법도 한데, 언제나 힘든 내색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새로운 것이라면 뭐든 배우려는 태도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자가도뇨(CIC), 머리 감기, 옷 입기, 트랜스퍼(자세 전환) 등, 하루의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활동들을 하나씩 직접 해보았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쉽지만은 않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해내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심 어린 노력과 성장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오후에는, 함께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로 외출을 나섰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아 이동이 조금 느렸지만,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바다 바람과 맑고 푸른 하늘이 오늘 하루를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자신감을 하나씩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웃음치료 프로그램 (06.07)

6월에도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에서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7월 5일(토) 오후 3시 30분, 7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행복 하모니' 이야기 (하모니카 프로그램) (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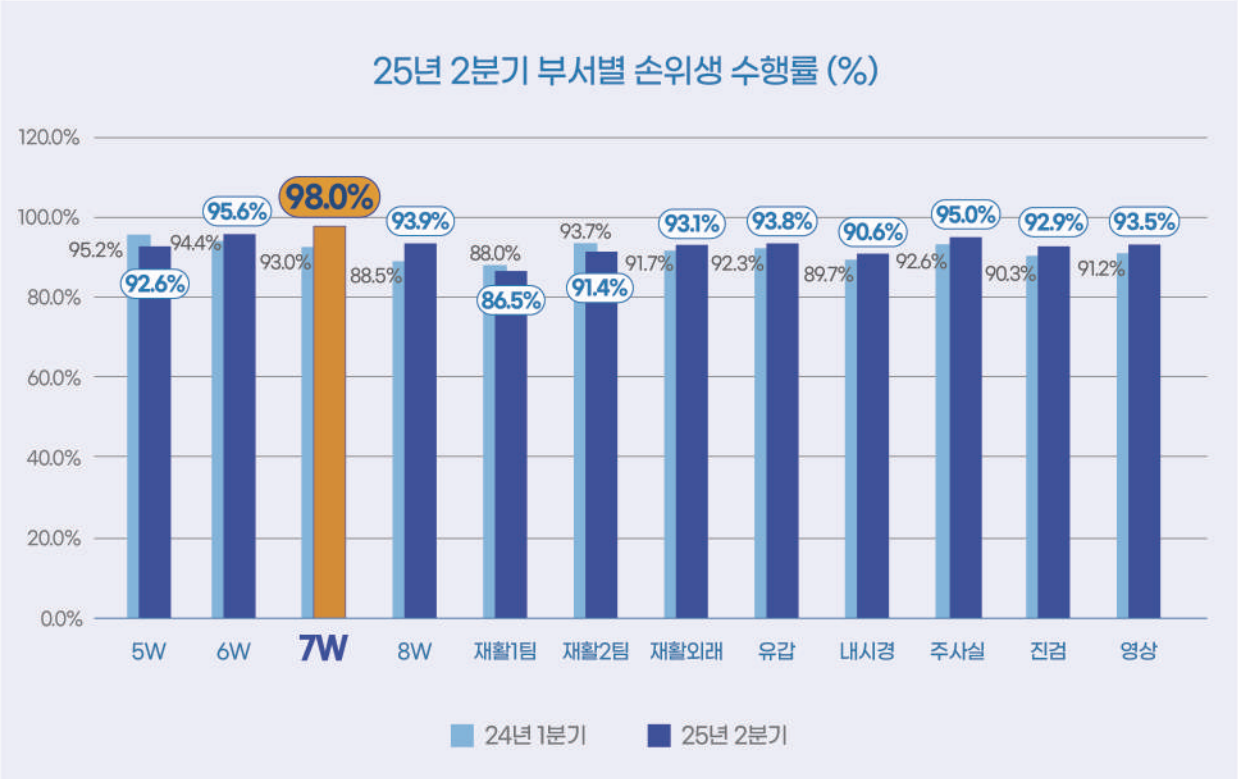
더 프라미스 오케스트라 대표님이자 지휘자이신 정희자 강사님과 함께 특별한 음악 재활 프로그램 '행복 하모니(하모니카 프로그램)'를 시작했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직원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6월부터 8월까지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 진행합니다.

하모니카는 작고 소박한 악기이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연주를 넘어, 호흡근을 단련하고, 폐활량을 키우며, 구강과 안면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진짜 선물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누군가의 일상에 음악이 스며들고, 서로의 멜로디를 맞춰나가며 어색하던 눈빛이 따뜻하게 녹아들고, 음 이탈에는 더욱 즐겁습니다. 하모니카를 처음 접하는 분도, 음악에 낯선 분도, 함께 부는 즐거움과 따뜻한 온기로 행복해지는 시간, 참여자와 직원이 함께하는 작은 연주회를 여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층 생활재활센터' 2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06.19)

분기별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2025년 2/4분기 손위생 우수부서에 7층 생활재활센터가 98.0%로 우수부서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손위생을 했는 지 물어봐주십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5년 6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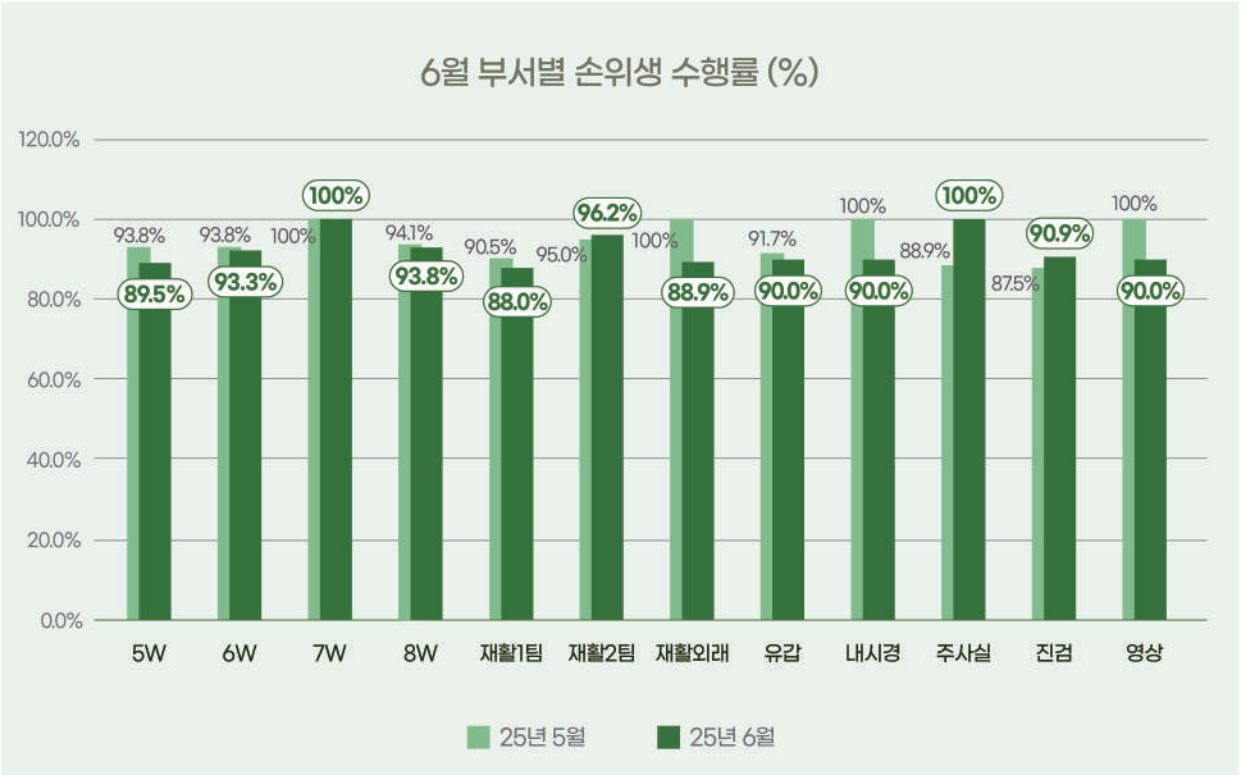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5년 06월 01일 ~ 2025년 06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5년 5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70	157	92.4%	**- 2.0%**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5년 2분기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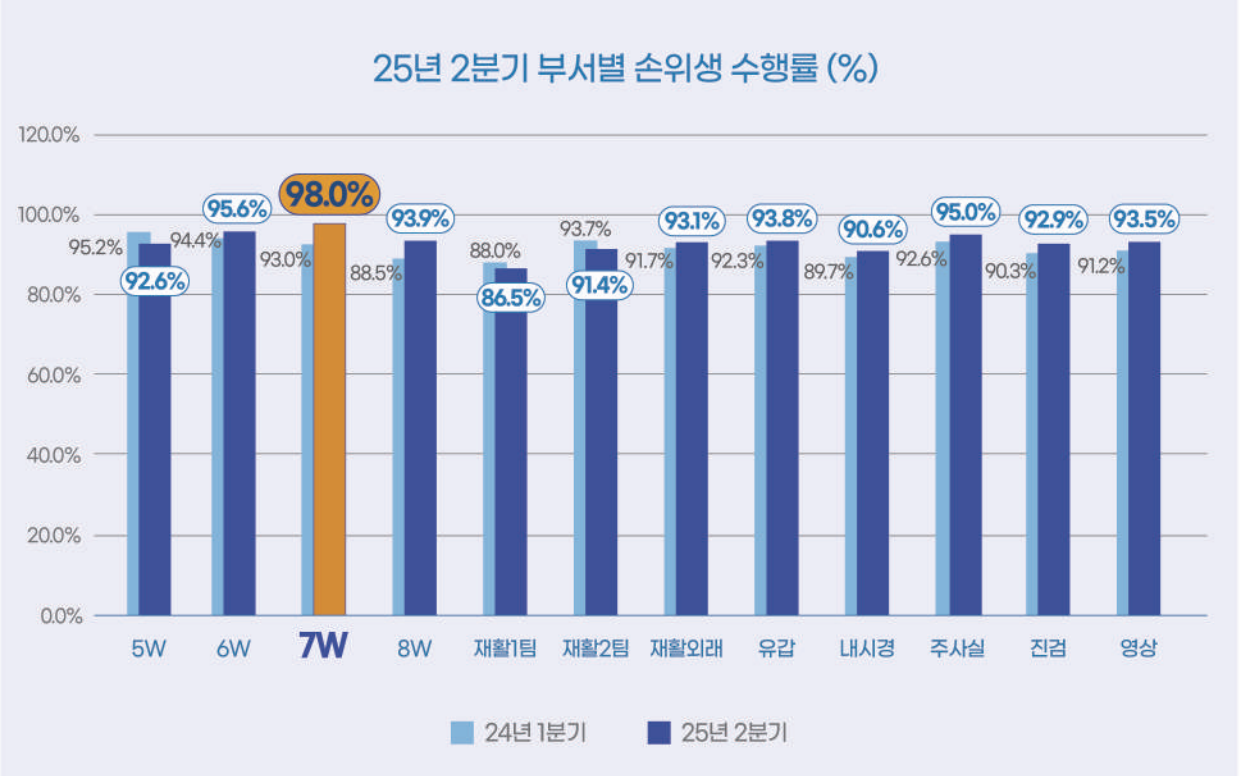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5년 04월 01일 ~ 2025년 06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513	475	92.6%	+ 1.0%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해피바이러스로 병원에 스며든 긍정의 아이콘

김○○님은 제과제빵사로 근무하며 타지역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 속에서 마음의 피로가 깊어져 불의의 낙상사고로 척수손상을 입고 본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이 컸지만 다행히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와 정서적 지지 덕분에 재활에 큰 힘을 얻고 계십니다.

입원 초기에는 신체 기능 회복이 주요 목표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김○○님은 병원생활에 적응해 가며 점차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특히 재활코치팀과의 면담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유쾌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 척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인 '심쿵해 캠프', '척수이야기' 등 다양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조심스럽고 낯설어했지만, 같은 장애를 경험한 당사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일상생활의 팁, 배뇨·배변 관리, 이동 보조기구 사용,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등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려움이 타인의 경험 안에서 이해되고 공감의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장애 이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정서적 지지를 경험한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스킬 교육프로그램에서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익혔고, 이를 통해 병원 외부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외 '밖으로 한걸음'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지역 기관을 방문하며 본인의 관심사와 욕구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고, 김○○님은 이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해피바이러스의 사회복귀 여정

6개월 이상 재활치료와 다양한 활동에 집중하던 김○○님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의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은 어느새 진학과 재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사회사업팀의 추천으로 재활코치팀과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하여 직업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업상담에서는 휠체어로 무거운 제빵 기구들을 옮기고 오븐 등 뜨거운 열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새로운 직업군 탐색을 추천하였습니다만 참여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군이 없어 아쉬움을 남긴 채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oo님은 사고 전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지만 현재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귀를 위해 주거환경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사회사업팀과 재활2팀 담당 작업치료사와 함께 모친과 남동생이 생활하는 자택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김○○님이 생활하는 동선을 따라 화장실, 거실, 방, 주방을 세심히 탐색하며 주거환경 개선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불안정하지만 보조기를 착용한 채 보행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화장실 내 안전손잡이 설치와 목욕의자 사용을 권장하였고, 긴 수전으로 교체하여 앉아서 샤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침대가 없던 방에는 싱글침대 배치를 추천하였고, 주방과 거실 간 식기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거실에 있던 식탁을 주방으로 옮겨 주방 내 식사를 권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추가 상담을 통해 모친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김○○님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국가지원을 원하였습니다. 경제적 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모친 명의의 소정의 재산 확인되어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 거주지를 분리한 독립생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김○○님은 퇴원 후 오피스텔에서의 생활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타지역 장애 상담과 관련된 학과 편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의 생활이 필요한 만큼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의 '전환홈'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회사업팀과 사회복귀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본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계십니다.

입원 초기의 두려움을 딛고, 이제는 병원 안팎에 웃음을 전하는 김○○님. 그 따뜻한 에너지로 사회복귀의 길도 환하게 밝혀가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일상을 회복해 가시는 걸음마다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 colspan="6"><table><tr><th>성별</th><th>나이</th><th>보호유형</th><th>대상질환</th><th>발병일</th><th>입원기간</th></tr><tr><td>여성</td><td>30대</td><td>일반</td><td>척수손상</td><td>2024.10.17</td><td>2025.02.27 ~</td></tr></table></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모, 남동생
■ 주보호자 : 모
■ 가족 지지체계 높음</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는 강하나 스스로의 적응 여부에 대한 걱정으로 간혹 불안한 감정 표출</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주 경제력자 모친이 치료비,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호소</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아파트
■ 주거환경 : 현관, 화장실 문턱.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필요, 침대, 식탁 구매 필요</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사회복귀를 위한 진로 고민
■ 참여자 독립생활 시 안전 및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우려
■ 경제적 어려움</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전환홈 퇴소 후 자택
■ 치료계획 : 미정(일상재활센터)
■ 이동수단 : 부산장애인콜택시(두리발), 대중교통(지하철)</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상담 : 사회사업팀, 재활코치팀
■ 정서지지 프로그램 : 집단상담 마음톡톡, 이벤트프로그램, 그룹치료,
행복 하모니(하모니카) 프로그램, 척수이야기
■ 밖으로 한걸음 연계 :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다양한 장애인 스포츠 체험</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 ‘심쿵해 캠프’, ‘전환홈’ 이용 예정
■ 취업상담 :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예정</td></tr>
</table>

함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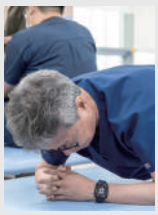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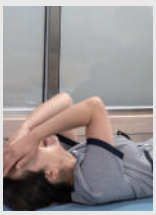




새로고침프로젝트
제2회 해나행 체력장 (06.09~16)






6/9일부터 체력장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리기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4층에서 진행되었고, 달리기는 병원 인근 '신도중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일주일동안 치열하고도 뜨거웠던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참가해주신 해나행 가족분들의 끈기 있는 모습에 새로고침 TFT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체력장 결과는 합산 후 순위를 공개하였고, 시상식을 통해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06월의 신규입사자



갑상선유방팀 김시향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7W) 이효정 간호사



재활간호팀(8W) 김슬기 간호사



가정의학과 황은교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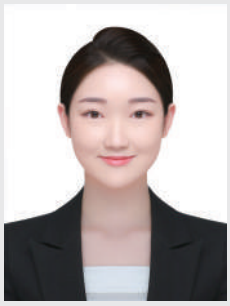
재활간호팀(7W) 김희수 간호사



야간전담과 김세림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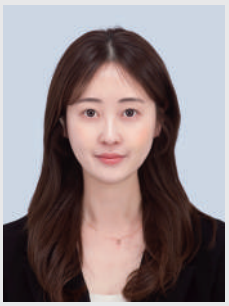
내과내시경팀 황혜령 간호사



재활간호팀(8W) 이희주 간호사



뉴미디어팀 서수원 팀원



갑상선유방팀 마정연 간호조무사

꽃

- 김춘수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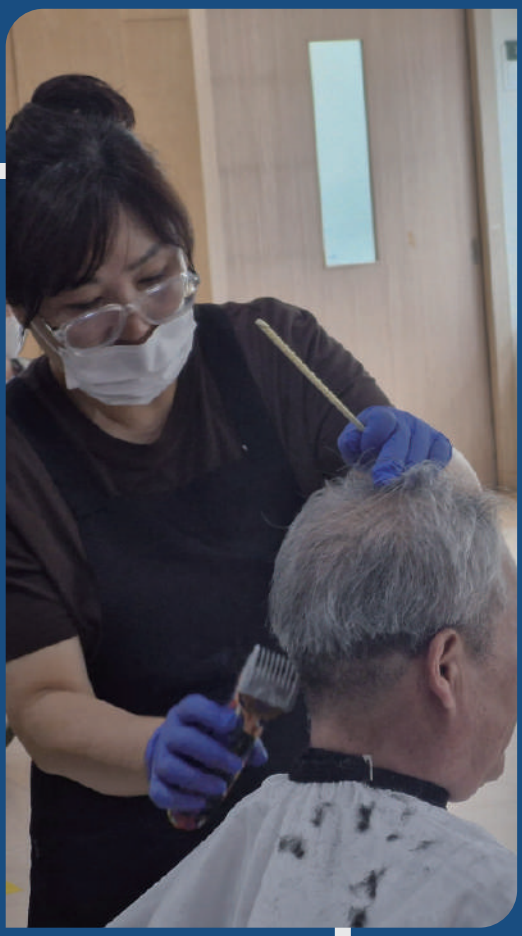


이미용 서비스 (06.17 / 0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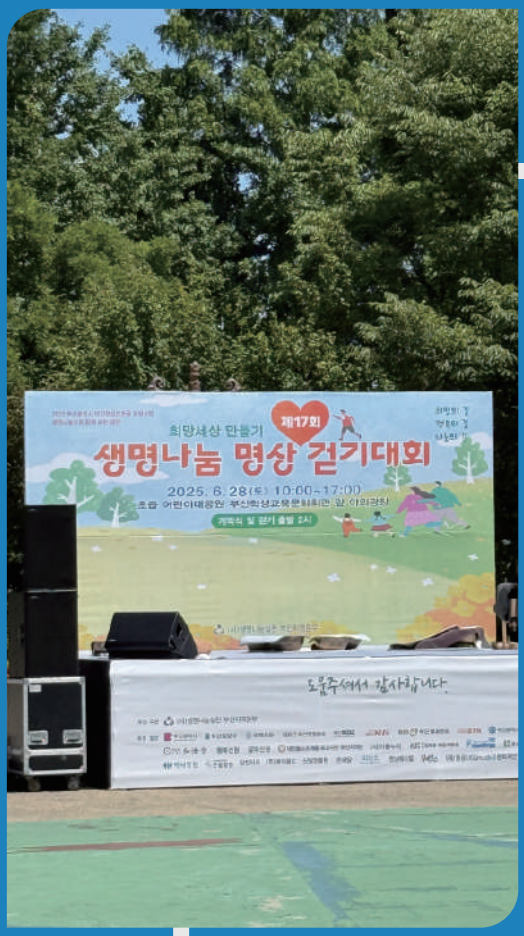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83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17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 ‘휠체어 전달식’ (06.28)

6월 28일 토요일,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희망세상 만들기 제17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초읍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걷기대회에 앞서 개막식에서 의료기관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사업팀이 참석하여 휠체어 1대를 지원받았으며 간호간병통합병동의 노후화된 휠체어를 교체하여 참여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항상 치료비 지원 및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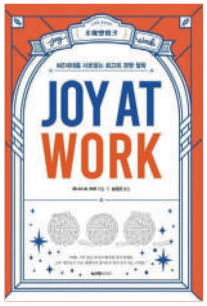
상 세 하 게

vol. 1 - ①

해나행 추천도서

1. 해나행 추천도서 ① "배준호 재활1팀장이 소개합니다"





Joy at Work

데니스 W. 바케 | 2021

"한 줄 추천사"

2021년 병원장님께서 주신 책으로 그 당시 읽었을 때는 과연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6월 다시 이 책을 읽게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 병원이 또는 팀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잘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밑줄 친 문장은요"

주옥같은 내용들이라 여러 곳에 밑줄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내용은 공유가치 부분이었습니다. 온전함, 공정함, 사회적책임, 즐거움...그리고 팀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모든 일에 주인공이 되어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때 가장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몇 년간 많은 변화를 하며 실무자들에게 권한과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P.29> "직원들이 스스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터, 흥분 기쁨이 있는 일터가 재무적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

<P.58> "일하는 즐거움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기량을 마음껏 사용해서 사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이 책을 2번 읽으면서 책 내용에서의 질문보다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팀의 리더로서 잘 실천하고 있는지?"
"앞으로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며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조직문화의 변화 그리고 우리 병원이 나아가는 방향을 알고자 하는 직원 누구나 읽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직위, 직책, 나이,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큰 울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휴가 결재

2. "모든 휴가결재, 한곳에서 신청하세요~"

"올해 대체휴무가 언제였고, 며칠이나 되나요?"
"대체휴무를 쓰면 되는데, 깜빡하고 연차로 썼어요"
"경조휴가를 신청하려면 휴가신청서1을 써야하나요? 휴가신청서2를 써야 하나요?"

그동안 나눠져있던 휴가관련 결재를 한곳으로 모았습니다.
7월1일부터 연차와 대체휴무, 기타 휴가 전부 메디통 [휴가 신청서] 한곳에서 신청하세요.

글로 설명하니, 복잡해보이지만, 메디통에서 직접 해보면 쉽습니다.
한결 간편해졌답니다.^^

(기존) 대체휴무/보상휴가는 메디통 결재문작성 → 대체휴무/보상휴가신청서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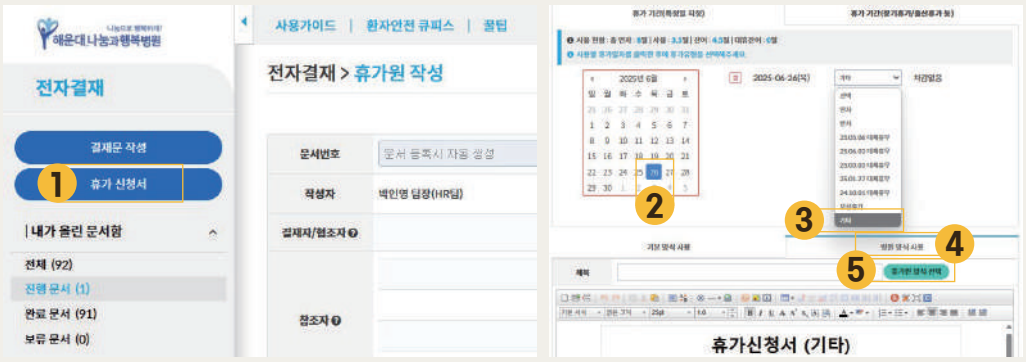
(변경) 연차-대체휴무-보상휴가 모두 [휴가신청서] 클릭으로 한번에 신청



① 휴가신청서 클릭
→ ② 원하는 날짜 선택 → ③ 휴가형태 선택 → ④ 기본양식사용 클릭 → ⑤ 사유란 작성

(기존) 기타 휴가신청은 메디통 결재문작성 → 휴가신청서1, 2 구분해서 신청

(변경) 기타 휴가신청도 [휴가신청서]를 클릭 → [병원양식사용]에서 한번에 신청



① 휴가신청서 클릭
→ ② 원하는 날짜 선택 → ③ 휴가형태[기타휴가 선택] → ④ 병원양식사용 클릭 → ⑤ 휴가원 양식선택
→ 기타 휴가신청서 작성

※ 궁금한 내용은
HR팀 박인영 / 박수진에게
언제든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는 기존처럼 [결재문선택 -출산전후휴가&자동육아휴직 신청서]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동백패스

3. 초역세권 해나행에서 근무하는 기쁨은 동백패스로 완성됩니다

지하철역에서 1분컷, 해나행에 근무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죠?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출퇴근하고, 교통비까지 환급받으면 기쁨이 두배!

#동백패스와 K패스를 가입하세요~ 교통비환급, 더 큰 금액으로 자동으로 돌려드립니다.

▣ 동백패스란?

- 부산 대중교통(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동해선, 경전철)을 이용하고
- 교통비가 월 4만5천원 초과되면
- 최대 4만5천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해드립니다.

▣ K-패스란?

- 전국 대중교통(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GTX포함)을 월 15회~60회 사용하고
- 교통비의 일정금액(일반20%, 청년30%, 2자녀이상 가구 30%, 3자녀이상 가구 50%)을
- 계좌입금(충전식) 또는 충전금(선불)으로 환급해드립니다.

▣ 지원방법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동백패스와 K-패스의 환급금 비교 후 더 높은 금액 자동환급

▣ 이용방법

▷ 동백패스 기존이용자 : [K-패스] 앱 회원가입 및 동백전카드 등록
▷ K-패스 기존이용자 : 동백전 교통카드 발급 ⇒ 동백전 앱 [동백패스 회원가입]
▷ 신규이용자 : 동백전 교통카드 발급 ⇒ 동백전 앱 [동백패스 회원가입] [K-패스] 앱 회원가입 및 동백전카드 등록
▷ 선불형 동백전 교통카드 이용자 : 이즐충전소 앱 설치 및 카드등록 ⇒ K-패스 가입

#2025년 7월부터 모바일 동백패스로 더 편리해집니다

▣ 모바일 동백패스란?

실물 동백전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삼성월렛 앱에 등록하면, 카드 없이도 모바일로 이용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부산은행 BC카드, 하나카드 이용자라면 7월1일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10월부터는 농협BC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열 아홉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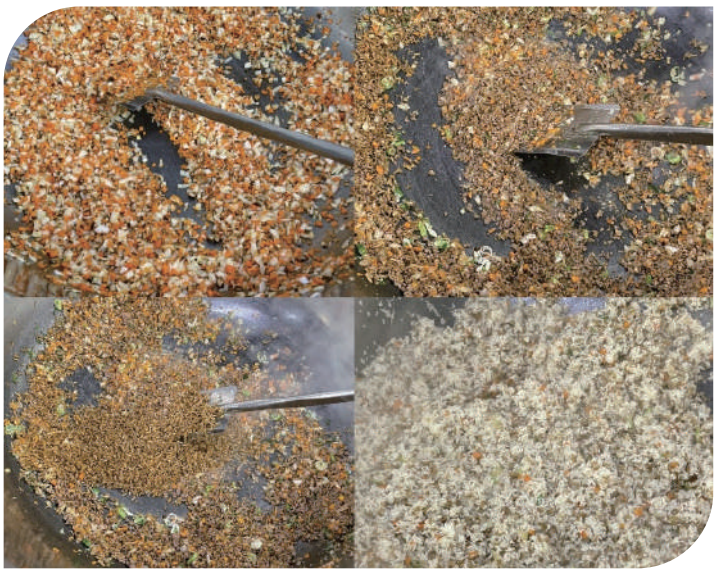
19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소고기우엉볶음밥



여기는 볶음밥 맛집!
김치 볶음밥, 나시고랭과 함께
해나행 볶음밥 3대장이라는 소문이 무성한ㅎㅎ
그 볶음밥을 메뉴에 딱 넣어달라는
참여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 달은 감칠맛 폭발하는
소고기우엉볶음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달달하게 졸인 다진 우엉에
다진 소고기를 넣어
고슬고슬하게 볶아주면
세대 불문하고 한 그릇 정도는 가볍게 뚝딱할 수 있는
소고기우엉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별다른 재료 없는데? 싶지만,
단 2가지의 재료만으로도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소고기우엉볶음밥.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와 정장 작용과
배변 촉진 효과를 지닌 식이섬유소, 신장 기능을 향상시켜
이뇨 작용에 효과가 있다는 이눌린이 풍부한 우엉의 조합은
그야말로 꿀 조합입니다.

이런 꿀 조합이 꿀맛까지 내니 해나행 3대장 답죠?
한 끼의 달달함으로, 한껏 가까워진 여름의 무더위를
잘 비켜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마음까지 잘 녹여서, 담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6.10 / 06.23)

지구도 웃고, 나도 웃는

> 유머 감각은 리더쉽의 기술, 대인관계의 기술,
> 일 처리 기술의 일부분이다.
> _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툭툭 무심하게 던지는 말에도 배꼽 잡게 만드는 능력,
미소든, 실소든, 폭소든 어떻게든 웃게 만들어서
어색함과 무거운 공기 흐름을 바꿔주는...
'이런 유머 감각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웃고 시작할까요?
살~짝 결이 다르지만,
98% 부족한 유머 감각을,
음식으로 채워 보겠습니다.

얼얼한 매운맛의 불닭소스어묵꼬치와
녹진함을 자랑하는 베이컨크림떡볶이가
웃음 버튼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죠?ㅎㅎ

점심 때, 이 음식들로
웃음 버튼을 작동시켜
한바탕 시원하게 웃고
오후를 힘차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반을 남기지 않으시면
지구도 웃고,
아이스티를 마시며 나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세요.



더위를 사냥하실 분

장마 사이에 햇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덥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무지무지 덥습니다.

저처럼 더위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더위를 날려 줄 더위사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을 투자하여 더위를 사냥하실 분들은
9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커피 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패스~

오늘 하루 카페인에 쩔어도 상관없는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겁나게 빠르게 오셔서
겁나게 빠르게 받아가 실 수 있는
능력자만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배달×, 예약×, 전화/워크문의×)

시간은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시작~



홍보팀장의 '브런치' 서른 여덟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38

영양제보다 믹스커피를 챙겼던 내가?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바꾸는 행위를 '놀이'라고 한다.

언덕 위 한 목동이 있고 그 주변에 염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고 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염소들이 갑자기 흥분하여 날뛰기 시작했다. 마치 늑대라도 나타난 듯이. 목동은 다가가서 염소가 먹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열매였다. 그렇다면 이 열매와 잎사귀에는 어떤 비밀이 있기에 염소들이 그토록 흥분한 것일까? 목동은 궁금해졌다. 붉은 열매를 먹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다. 상쾌해졌다. 졸음이 사라졌고 피곤함이 없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기원, 즉 7세기 에티오피아의 칼디의 설이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열매.

평범한 출근, 직장 내 직원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다. 양치를 한 후 사무실로 들어와 종이컵을 꺼낸다. 테이블 위 커피 박스에 손을 넣고 커피믹스를 하나 꺼낸다. 왼손엔 종이컵, 오른손엔 믹스 끝을 잡고 정수기로 향한다. 늘 그렇듯이 커피믹스 안에 내용물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기 위해 반대쪽 끝을 잡고 흔든다. 엄지와 검지로 끝을 잡고 손목스냅을 이용해 하나, 둘 흔들어준다. 그 순간 놀랄 일이 일어난다. 초록색 자르는 선 부분의 끝만 내 손에 남겨진 채 커피를 담은 내용물이 공중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이 순간만큼은 슬로우비디오다. 2초가 2분처럼 느껴지는 순간. 커피믹스가 공중에서 몇 바퀴의 공중회전을 하고 나서야 바닥으로 착지한다. 분말이 상대적으로 작은 설탕과 프림은 봄날에 벚꽃처럼 흩날리며 떨어졌고, 입자가 굵은 커피는 겨울의 동백꽃처럼 무게감 있게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열매.

(그 당시 사무실은 3층 병원장님 방 옆) 이날 난 3층 고객대기실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커피믹스 내용물들을 치우느라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 물티슈와 휴지 그리고 막대걸레까지 동원했다. 마지막에 물티슈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데, 마침 일찍 출근하신 병원장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마디 건넨다. "김팀장 아직도 믹스? 이제 갈아탈 때 된 거 같은데" 유유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간다. 바로 그 옆방에 내 사무실이라 아침의 우연한 마주침은 낯설지 않다.

77년생인 나는 커피믹스와 아메리카노를 모두 겪으며 지내고 있는 세대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첫 직장에서는 커피, 프림, 설탕이 각기 다른 병에 담겨 취향에 따라 스푼에 양을 조절하며 삼삼삼, 둘둘삼, 삼삼일 등의 취향에 따라 커피를 마셨다. 두 번째 직장에서는 간단한 커피믹스지만 취향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하얀색까지 원하는 걸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커피믹스 그대로이다. 다만 주위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출근길 지하철 계단을 올라온 직원들은 곧장 커피매장으로 들어간다. 미리 앱으로 주문한 직원은 바로 한손에 크고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들고 나온다. 계절에 따라 하얀색 종이컵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젊은 직원들은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올해 3월 무렵, 중2병이 오지 않은 큰아들과 내기를 했다. 아들은 늘 아빠의 음주를 걱정하고, 나는 녀석의 인스턴트 군것질을 걱정한다. 우리 둘은 접점을 찾았고, 나는 한 달 동안 술과 믹스커피를 끊겠다고 다짐했다. 녀석은 탄산음료와 라면, 젤리류를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확한 날짜도 기억한다. 2026.03.12.일다. 서로가 이를 어겼을 때 마이너스 1점씩을 부과하고 한 달 뒤 감점이 많은 패배자가 승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굴까? 무승부다. 결국 나는 중간 중간에 술을 먹었고, 아빠의 음주는 곧 아들에게 그 만큼의 적당한 군것질로 이어졌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한 달간의 무모한 내기.

그런데 그 과정에 변화가 있었다. 영양제는 안 먹어도 1회용 믹스커피 3잔은 삼시세끼 꼬박 챙겨먹던 내가 믹스커피를 먹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한 달간 딱 2잔 먹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마 처가댁에서 장모님이 타놓아서 마지못했지만 꿀물처럼 먹었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직장에서도 아침에 식사 후 아메리카노를 대신해 먹었고, 저녁에도 집에서 먹지 않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6/27)까지도 약 100일이 넘는 기간 총 10개의 믹스커피도 먹지 않았다. 술을 끊지 못했지만 믹스커피는 어느 정도 끊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바꾸는 것이
> '일'이라고 한다면
> 익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바꾸는 행위를
> '놀이'라고 합니다.
> _유영만《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위너스북)

익숙했던 커피믹스를 낯선 것으로 바꾸는 놀이에 성공했다.

이제는 '술'이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젠장.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5년 06월 30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